



디지털인쇄 후가공장비 제조업체 기선 Digi Caser 포토북·앨범 솔루션 사업에 동반자로 부상

디지털 인쇄후가공 장비 제조 기업인 기선(대표 김춘학)의 올인 원 디지털 포토북 및 앨범 솔루션(all in one digital print photo book & Album solution)이 생산성 향상과 생산 단가 절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및 디지털 인쇄 업계에서 사용하는 UV 코팅기(디지털 UV 코터), 자동 압축 제본기(디지털 바인더), 자동 오시기(디지털 크리저), 싸바리기계(디지털 케이서), 센터페이핑기(디지털 씨테이퍼) 등 다양한 디지털 인쇄 후가공 장비 및 포토북, 앨범 바인딩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선(대표이사 김춘학)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기업이다.

기선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 디지털 인쇄물 전용 UV 코팅기로 먼저 소개되어 현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제품의 효율성과 품질을 인정 받고 있는 디지털인쇄장비시장에서 몇 안되는 국가 대표급 기계제조 기업이다. 일본의 호리즌 및 듀프로와 같이 디지털 인쇄 후가공 장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자 원대한 목표로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 열렸던 KIPES 2010을 통해 다수의 후가공 장비와 신제품 포토북 및 압축 앨범 바인딩 시스템을 소개했던 기선은 특히, HP 인디고사의 포토북 솔루션 파트너로서 HP에 자동으로 디지털 바인더(Digi Binder)를 시연하여 많은 국내외 고객의 관심과 시선을 받았다.

Interview



김춘학 대표이사

“ 세계시장 석권할 디지털인쇄 후가공기 선보일 터 ”

먼저 기선의 회사 소개를 해주시지요.

2003년 기선 산기라는 이름으로 사진 앨범제작 장비를 제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코팅에 사용되는 수성액상 코팅 방식의 불편함과 단점을 해결하고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사진코팅에 UV코팅기법을 도입하여 앨범제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05년 가속화 되는 디지털 인쇄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여 디지털 인쇄물 전용 코팅기인 UV코팅기(Digi UV Coater)를 개발하여 컬러 디지털 인쇄가 먼저 상용된 유럽과 미국시장에 우선 소개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 드루파에서 큰 호응을 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선은 디지털 인쇄 후 가공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의 사업목표로 자동 압축제책기인 Digi UV바인더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선은 전 제품에 대한 CE인증, 벤처 기업 인증 등 다수의 산업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사업, 수출기업화사업 등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지털 인쇄 후가공 기계 제조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장비를 기획, 설계할 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선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소개해 주시지요.

디지털 인쇄물 전용 코팅기인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UV코터, 자동 압축제책기인 디지털 바인더, 자동 오시기 및 공급기, POD용 싸바리기계인 디지털 케이서, 합본기인 디지털 케이스인, 자동 센터테이핑기인 디지털 씨테이퍼 등이 있고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 신제품이 다수 있습니다. UV 코팅기인 경우 각 디지털 인쇄기 잉크성분 상이할 때문에 코팅장비의 호환 사용이 어려운데 저희 회사의 코팅기는 까다로운 토너잉크 등 전 디지털 인쇄물이 코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바인더는 작년부터 판매시작 한 당시의 신 주력제품으로 해외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제품을 기반으로 디지털 인쇄물 포토북제조 전체 생산 장비를 이번 KIPES2010에서 새로이 선보여 참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내에 출시한 '디지털 바인더'의 특징과 그 구조는 어떤지요.

디지털 바인더는 앨범과 포토북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에 생산성은 높고,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특히 180도 펼침의 Lay-Flat 가능한 고품질의 POD(Print On Demand) 디지털 포토북이나

앨범을 간편하게 제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백투백(Back to Back) 풀칠 제본으로 속지 삽입 또는 비 삽입 방식의 압축제책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바인더는 터치 방식의 자동 조작판으로 제본의 매수, 수량과 제본 타입이 설정 가능하며 대량 적재가 가능한 에어 흡입 방식의 '자동 급지기', 특허 기술인 탈착 풀 롤러인 '카트리지 타입 풀칠 장치', 자동 순환 방식의 '풀 공급 펌프 시스템', 특허 기술인 공기 제거 방식의 프레스 장치 '풀칠 제책기'로 구성되어 최소 5×7인치부터 최대 12×14인치까지 크기의 앨범 및 포토북을 편리하게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바인더는 해외에서 먼저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어땠나요.

지난해 9월, 디지털 바인더 개발이 끝난 후 미국 시카고 Print 09에서 해외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도, 태국에 이어 올해 스페인·네덜란드 전시, PMA2010, 일본 Photonext 2010, IPEX2010에도 참가해 지속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Photokina에도 전시 출품됩니다.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선 앨범을 제작하는데 바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빠르면서도 품질과 작업 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겸비한 디지털 바인더는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리점 계약 및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독창적(Creative), 경제적(cost economical), 편리한(Easily operative) 제품을 꾸준히 개발, 생산, 보급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쇄물의 포토북을 손쉽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법과 아이디어를 디지털인쇄 사업주에게 보급하는데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파주출판단지에서 개발된 포토북 제조 데모 센터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단지 장비를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 판매되는 전 공정을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 14일과 26일 파주와 대전에서 디지털 인쇄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디지털 인쇄기를 운영하시면서도 비용과 콘텐츠 문제로 망설이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사업 기본인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전시회 참가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호 부장 khsulk@print.or.kr